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Practical Tips for Working with Transgende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Michael Munson, FORGE 원저
김재원, 박아름 옮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의도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고, 본 상담소를 비롯해 많은 상담·지원 기관조차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정보, 경험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할 때 명확한 지침이 없던 차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해외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원저자의 글을 번역하여 엮었습니다. 이 자료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트랜스젠더 내담자/참여자/구성원과 만나는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 자료의 전문 번역 및 배포를 허락해준 FORGE의 Michael Munson 님, 원문을 꼼꼼하게 번역해준 자원활동가 김재원 님, 원문 및 번역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 잘 맞는지 살펴봐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 감사드립니다.

2020.09.18.

한국성폭력상담소

차　　례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 **4**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팁 ····· **8**

간단한 팁 : 트랜스젠더 포함하기(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14**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하기 ····· **16**

[별첨] 카드뉴스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 **21**

일러두기

1. 별도 표시가 없는 주석은 모두 옮긴이가 붙인 '역주'입니다. 원문에 달려 있던 주석은 '원주', 감수자가 덧붙인 주석은 '감수'로 표시하였습니다.

2. 각 번역본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①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III
   https://issuu.com/debibodett/docs/dec_10_connections___300dpi
   ② Quick Tips: Trans Inclusion (A guide for service providers)
   https://forge-forward.org/2010/04/25/quick-tips-providers/
   ③ PCAR, 『SERVING TRANSGENDE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2013
   https://pcar.org/resource/serving-transgender-survivors-sexual-violence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Ⅲ, PAGE 8-10.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FORGE

마이클 먼손은 트랜스젠더와 그 동반자, 가족, 친구, 지지자들을 지원하며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FORGE의 창립 사무총장이다. FORGE는 밀워키를 기반으로 트라우마 폭력 및 노화에 집중하여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클 먼손은 정치활동가로서 20년 넘게 트랜스젠더와 지지자 커뮤니티 안팎의 사회적 부정의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는 단절된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조화와 희망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

트랜스젠더는 포괄적 용어로서, "젠더 커뮤니티" 전체, 즉, 트랜스섹슈얼[1], 크로스드레서[2], 간성[3], 안드로진[4], 바이젠더[5], 젠더퀴어[6] 및 그들의 동반자와 가족, 친구, 지지자들을 모두 포함한다.[7]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구분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고, 젠더 구분이 모호하거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부치[8]" 레즈비언이나 여성스러운 게이 남성을

1) 태어났을 때 의사나 산파 혹은 부모에게 지정받은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다르고,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형태로 몸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투여, 가슴 수술, 외부 성기재구성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거친 사람
2) 이성의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 또는 이성의 옷차림을 할 때 자신과의 일치감, 편안함, 안정감 등을 느끼는 사람
3)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표현하는 신체 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들
4) 남성(Andro-) 젠더와 여성(Gyny) 젠더의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젠더 형태로 하나의 젠더를 갖는다. 스스로를 양성 혹은 중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며, 정신적인 인터섹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에 따라 몸에 불편을 느껴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떤 때는 '남성'으로 의식하고 어떤 때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두 성별을 오간다.
6)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성별정체성, 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7) (감수)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는 주로 정체성 용어로 사용될 뿐, 원문처럼 (앨라이를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를 의미하는 뜻으로는 통용되지 않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8) 복장, 말투, 몸짓 등에서 소위 남성적인 방식으로 성별표현을 하고 이를 편안하게 느끼는 레즈비언

가리키기도 한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오로지 크로스드레서만을 가리킨다.

정의하자면,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종합적으로 남들이 말하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자아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트랜스젠더 개인들의 공적인 활동 증가, 관련 이슈의 공론화로 개인들이 기존의 정체성 모델에 접근하기 쉬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경험은 상당히 소외되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트랜스 경험에 대한 용어체계가 정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용어 정립을 위한 논쟁이 치열한 것은 아마 주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트랜스 정체성 혹은 경험을 묘사하는 용어는 말 그대로 수백 가지에 달한다. 그러므로 정의나 예시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며, 트랜스 개인이 자신의 자기인식과 경험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여기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비고: 대명사 그/녀, S/he, hir, ze, sie는 남성대명사와 여성대명사 간의 양자택일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젠더중립적 대명사이다.][9]

주요 개념

우리 문화는 누구나 두 가지 젠더 중 하나에 들어맞아야 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젠더에 머물러야 한다는 불변의 젠더이분법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 성향”에 불안감이나 적대감을 내비친다. 일부 트랜스젠더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 실수로 잘못된 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으며 수술이나 기타 방법으로 “반대편” 성별에 편안하게 들어맞도록 신체와 외양을 바꾸기만 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동안 학습해 온 가정을 기꺼이 뒤집어엎고, 젠더는 두 가지 체크박스로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젠더정체성(개인의 내적 자기인식)과 젠더표현(옷, 이름, 습관, 머리 모양, 액세서리 등)은 각각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이러한 정체성과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거나 성별 단서를 “혼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처럼 더 광범위한 “트랜스젠더”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대범하게 어울리는 사람들 모두 트랜스젠더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트랜스 인구가 매우 많다고 여긴다.

시스젠더[10]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 개인들과 그 파트너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트랜스 개인을 포함한 많은 커플들이 복합적인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 명은 레즈비언, 게이, 혹은 바이섹슈얼일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헤테로섹슈얼일 수 있다. 트랜스젠더로만 구성된 커플도 상당히 많다.

---

9) (감수) 그/녀, s/he는 1970년대 이전부터 사용됐던 표기법이지만, 오히려 분절과 이분법을 더 강조한다는 비판이 있어 2000년도 중반 즈음부터 대안적 표기법을 만들자는 흐름이 학계와 영미권 젠더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논의한 결과 hir, sie, zie, ze 혹은 모든 3인칭을 단/복수 상관없이 they를 사용하는 등의 표기법이 제안됐다. 현재는 여러 대안 용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추세이고,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기법은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사용하길 요구되었지만, 모든 당사자가 선호하고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러한 표기법을 거부하는 당사자도 있다.

10) 성별정체성이 지정성별과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생존자는 누구인가?

트랜스젠더 개인은 출생 당시의 지정성별/젠더 혹은 다른 젠더로서 아동 성폭력을 경험했을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어느 젠더로서든 성폭력을 경험했을 수 있다. 또한, 파트너의 젠더를 불문하고 가까운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겪었거나,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으로 인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폭력의 만연

트랜스젠더 개인들에 대한 성폭력 실태는 추측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자와 그 지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대답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30여 명의 트랜스 생존자와 지원 활동가들 간 진행된 모임에서, 레즈비언과 FTM(Female-To-Male, 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젠더정체성은 남성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모두에 속해 있는 "젠더퀴어" 한 명은 자신의 친구와 지인 중에서 아동 혹은 성인 성폭력 생존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비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트랜스남성 생존자이자 반성폭력 운동가인 또 한 명은 '내가 속한 반폭력 모임에서 레즈비언들은 트랜스젠더 생존자에 주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트랜스들은 성폭력 피해를 2%밖에 경험하지 않잖아"라고 주장한다'고 술회했다.

여성은 약 3명 중 1명이, 남성은 약 6명 중 1명이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통계는 상당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든 트랜스인들이 출생 당시 이 두 가지 젠더 중 하나로 지정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대체로 그 둘 중 하나로서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트랜스인들도 최소한 시스젠더들과 같은 비율, 즉 16%에서 30%의 비율로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트랜스 활동가들은 성폭력을 비롯한 전체적인 폭력 발생률이 트랜스인들 사이에서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가?

일부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자신들이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성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성판매자[11]가 아니지만, 일부는 결국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다. 성판매가 수익성이 높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트랜지션[12]을 하는 등)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며, 다른 직업을 찾아서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길거리와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직업은 자연히 그들을 더 위험

---

11) (감수) 성판매자(sex worker). 영어로 sex work/er는 중립적인 용어이고 그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성노동자, 성판매자, 성판매 당사자, 성산업 종사자, 성매매 여성, 성착취 피해자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sex worker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한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성판매자로 번역했다.

12) '다른 상태조건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로, 성소수자와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을 뜻한다. 좁게는 호르몬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을 가리키며, 넓게는 성별정체성에 맞는 성별표현과 성역할의 변화 과정까지 포괄한다.

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일부 활동가들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 성판매자들의 경우 그 사실이 타의에 의해 밝혀지게 되면 더 높은 확률로 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로 "읽혀"지는 것은 성판매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완전히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 호르몬이나 수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 체형/체격, 무의식적인 습관, 목소리, 법적인 문제, 혹은 대인관계를 맺거나 구직하려 할 때 요구받는 요건들에 자기표현을 견주어 맞춰야 하는 일 때문에 그 젠더로 완벽하게 "패싱[13]"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젠더퀴어나 안드로진, 젠더 급진주의자[14] 등, 의식적으로 젠더를 초월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는 젠더와 성의 일치를 추구해왔으므로 이들 개인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폭력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선머슴"같거나 "사내답지 못해서" 부정적으로 주목받는 아동들도 이에 해당한다. 가해자들은 해당 아동의 논바이너리[15] 젠더를 폭력에 대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 "계집애처럼 굴지 마라", "남자가 뭘 그런 것 갖고", "여자다운 게 뭔지 가르쳐야겠어"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트랜스인 성폭력 생존자를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13) 어떤 사회에서 한 구성원이 (신체적 형태 및 언어, 행동 등의) 요소를 통해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14) 젠더 급진주의자(gender radical). 기존의 방식과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젠더에 대해 & 젠더의 다양성에 대해 새로이/급진적으로 보는 관점 혹은 집단

15)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정체화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팁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Ⅲ, PAGE 10-13.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1. 직원들을 교육하라

트랜스젠더 개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정신건강 혹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가서 돈을 내고도 자신들이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트랜스인 내담자들을 맞이하기 전에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의료 실무자들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더라도 접수처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되어 있지 않다면 트랜스인 내담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접수처 직원이 내담자가 불일치를 느끼는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내담자가 기재한 성명을 대화에 반영하지 않거나, 어색한 행동을 보인다면 내담자는 굳이 상담실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비 의료진과 접수처 직원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쉽게 교육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하도록 안내하며, 모든 내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

2. 스스로 성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많은 사람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을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젠더에 기초한 스테레오타입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일정 부분 성차별주의자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젠더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온다면, 우리는 통상 그들의 인종과 젠더를 먼저 의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특징들에 기초해서 가정을 한다. 흑인 남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길을 건너는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 그들 중 상대방이 백인 (혹은 어떤 인종적 배경을 가졌든) 여성이라면 길을 건너지 않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폭넓은 일반화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며,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세대를 걸쳐 내려온 사고체계는 우리가 심리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방해가 된다. 많은 성폭력 상담자들과 지원 활동가들은 확고하게 여성 중심적인 이론과 업무수행 방식, 조직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트랜스젠더 생존자들을 대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남성에 대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모든 트랜스젠더

들이 그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남성의 신체로 생활했거나 남성 혹은 남성적이라고 인식되었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재 혹은 과거의) 남성성은 누가 누구를 피해자로 만드는지, 어떤 성별이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자의 기존 인식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기존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지 따져보기 이전에, 남성 생존자들에 대해 실무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념과 행동 때문에 (특히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지점에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젠더를 배제하거나 부정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의 젠더정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포용적인 서류 양식을 사용하고 정책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트랜스젠더 내담자가 성공적으로 약속시간을 잡고 접수처 직원이나 다른 행정직원과 원활하게 대화한 경우, 접수신청서 양식이 다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에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체크박스가 모두 포함되게 하거나, "젠더"에 대한 답변을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게 준비하라.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두 가지 옵션 중의 하나를 고르도록 강요한다면, 트랜스젠더 내담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끼거나 이후에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항목에도 체크하지 않자,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심리치료사가 왜 양식을 다 작성하지 않았냐며 내담자에게 "비협조적"이라고 몰아붙인 경우가 있었다. 트랜스젠더 항목을 포함하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명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당신이 트랜스젠더 이슈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상담소 내에 내담자의 권리를 기재한 요강이 있다면, 젠더, 젠더정체성과 표현, 그리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라. (물론 여성 내담자만 받는 경우에는 그 역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책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상담소에서 특정 젠더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유형의 트랜스인들이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많은 트랜스인들은 젠더 배타적인 모임에 불편함을 느끼므로(아래 생존자 발언 참조), 어떤 생존자든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발언 및 본고에서 인용한 다른 생존자 발언들은 2004년 FORGE의 성폭력생존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265명의 트랜스젠더/지지자들의 답변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주위에 남성 아동 성폭력 생존자 모임이 있지만, 신체적으로 완전히 트랜지션하기 전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트랜지션이 완료된 후에는 내가 더이상 그 모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친족 성폭력 등을 둘러싼 내 [경험]과 정서는 생물학적 남성이나 생물학적 여성의 것과 다르다. 나는 어떤 남성 모임이나 여성 모임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4. 내담자의 언어를 사용하라

호칭은 내담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는지 직접 선택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감응하며, 그 외의 방식으로 불릴 때면 부조화를 느낀다. 내담자가 선호하는 호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라.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원하는 호칭을 알릴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호칭으로 불렸을 때 큰 고마움을 느낀다.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대명사나 이름을 사용한다. 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16], 바이젠더, 양성적 정체성을 가진 경우거나,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젠더로 생활하고 있거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에 사용한 대명사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트랜스젠더 내담자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지칭할 때 특정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유방 vs. 가슴, "앞쪽 구멍" vs. 질)

주의 깊게 듣고, 내담자의 안내를 따르라.

5. 경청하고, 신뢰하고, 관련성 있는 질문을 하라

내담자가 상담소를 찾아올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상담자가 자신의 최우선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내담자의 경험에 따르면, 상담자에게 "커밍아웃[17]"하는 순간 상담자들이 개인적인 호기심에 넘어가서 트랜스젠더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상담자나 다른 지원 활동가들이 내담자의 수술 상태나 법적 성별, 오르가즘 잠재력, 기타 선을 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돌린다면 이는 생존자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일이다.

모든 생존자는 상담자가 아닌 본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담자로부터 전적이고 적극적인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상담실이 아니라 교육 세션에서나 해야 할 질문을 함으로써 상담의 목적을 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말라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었다거나,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이 성폭력을 부추겼다고 추측하게 되기 쉽다. 일부 트랜스젠더 생존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제 트랜스젠더리즘이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거나, 제가 별종이라서 폭력을 부추겼다고 말할까 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두려워요. 제가 정당하게 제 정체성을 주장하는 일에 그런 우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폭력을 당하기 전에도 트랜스젠더였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16) 유동성별. 성별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사람
17)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수년 뒤, [가해자]는 자신이 가한 폭력이 제 성적지향과 젠더표현을 바꾸어놓았다고 했어요. 열 받았죠. (…) 마치 자기가 나한테서 또 다른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처럼 말하는 것이요. 저는 제 정체성은 제 선택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혔고 (…) 그가 한 일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폭력은) (...) 범인이 저한테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저지른 거였어요."

7. 폭로와 솔직함을 구분하라

어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지만, 다른 이들은 "스텔스" 상태, 즉 원하는 젠더로 완벽하게 패싱하고 과거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비협조나 속임수, 거부의 표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생존자들은 자기 신체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기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 일부 트랜스젠더들은 본인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의학적 상태이며, 의사 외에는 들을 필요가 없는 사적인 정보라고 여긴다. 그런가 하면 트랜스 혹은 생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 숨기는 이들도 있다. 이는 트랜스인들과 정신건강 의료진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다.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호르몬 처방이나 젠더 관련 수술에 앞서, 내담자가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심리치료사의 확인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심리치료사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심리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내담자에게 편견을 갖게 될 위험이 생긴다.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내담자의 성폭력 이력을 알게 된 후 트랜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면 상담자가 트랜스혐오[18]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주류 상담센터에는 가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받기] 위해 제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트랜스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담센터에도 가기 두려워요. 성폭력 생존자에게 진료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바위틈 사이로 떨어지는데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트랜스인들 중 "부적당한" 신체, 즉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수술을 거치지 않은 신체의 소유자들은 옷을 벗었을 때 트랜스인임을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트랜스인들은 탈의를 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는 받기를 거부한다.

내담자가 준비됐을 때 커밍아웃할 수 있게 하자.

8. 디스포리아를 고려하라

18)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거부·혐오를 말하며, 낙인을 찍거나 차별하는 태도·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트랜스인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같은 종류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신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 그대로 혐오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신체 디스포리아(신체에 대한 위화감 혹은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단지 남들의 기대치와 다른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자기 몸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연결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유형의 성폭력 생존자들이 종종 신체에 대한 디스포리아 혹은 분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생존자들과 그 상담자들에게는 무엇이 젠더 디스포리아고 무엇이 신체 디스포리아인지, 그리고 무엇이 폭력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 한 생존자도 이에 대해 "계속 강간 트라우마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트랜스 성향 때문이었죠"라고 응답했다.

(신체 혹은 젠더) 디스포리아는 도움을 청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트랜스인이 진찰받기는커녕 생각도 하기 싫은 신체 부위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트랜스 생존자에게는 폭력 피해 이후의 치료가 시스젠더 내담자보다 훨씬 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섹슈얼리티를 표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일에도 남들보다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많은 트랜스인들이 성관계를 탐험하고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어려워한다. 일부 트랜스인들은 폭력이나 거부, 그리고 "솔직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상대방과 "노터치" 부위를 정하거나 안전 섹스 등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협의하는 것을 힘겨워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못 만나느니 착취적인 관계를 갖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9. 다양성을 소통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은 때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대화에서 드러내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고 당신이 이해하는 경험과 개념, 감정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라.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예시를 들고, 정답을 유도하는 대신 자유로운 답변을 독려하는 질문을 하며, 성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쉽게 할 수 있다.

10. 대담함과 창의성을 발휘하라

대부분의 의료 서류 양식은 트랜스젠더 신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서비스도 부지기수다. 내담자를 존중하면서도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위해, 내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라.

역주 참고문헌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5,『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 성소수자부모모임, 2018,『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SOGI법정책연구회, 2018,「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 페미위키, 2020년 7월 15일, https://femiwiki.com

간단한 팁 : 트랜스젠더 포함하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출처 : Quick Tips: Trans Inclusion (A guide for service providers)
저자 : FORGE
번역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감수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1. 언어	당신의 내담자가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라. 내담자가 주변에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담자가 선호하는 대명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라. 내담자가 "성별화된" 신체 부위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따라 하라. (예: "가슴"보다는 "유방")
2. 태도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기에 대해 동료와 논의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담자에게 그들의 성기에 관해 묻는 것도 부적절할 것이다. 사람의 성기는 사회적 행동, 서비스 제공, 법적 지위를 목적으로 그들의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다. 적절한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내담자의 트랜스젠더 상태를 논의하지 마라. (개인정보 보호법[19]을 떠올려라)
3. 집중	내담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집중하라.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그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 트랜스젠더 내담자를 당신이나 동료가 교육받을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정책	당신이 일하는 기관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모든 직원이 정책을 알고 따르도록 하라.
5. 문제 상황에 맞서기	당신이 일하는 기관이 모든 직원과 모든 내담자의 혐오 표현 및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내담자와 공유하게 하라.
6. 서류	성별에 대해 묻는 접수 양식과 기타 문서는 트랜스젠더 선택지를 포함하거나 내담자가 직접 답변을 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질문들은 반드시 성적 지향(어떤 성별에 끌림을 느끼는지)과 성 정체성(스스로 여성, 남성 또는 다른 성별로 인식하는 내면의 감각)을 적절하게 구별하도록 구성하라.

7. 알기&말하기	만약 내담자에게 개인적인 그리고/또는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한다면, 질문하기 전에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당신도 모른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내담자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
8. 역량강화	비록 일부 내담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내담자는 자신의 치료와 서비스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직접 결정할 능력이 있다. 해당 개인에게 적합한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내담자에게 당신이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라.
9. 창의력 발휘하기	트랜스젠더는 기존 시스템이나 양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내담자에게 미리 결정된 맞지 않는 상자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대신 시스템이나 양식을 그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내담자를 존중하라.
10. 지지하기	가능할 때마다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에게 더 적합하도록 시스템, 정책, 양식을 바꿀 것을 지지하라. 만약 당신의 기관/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기 어렵다면, 트랜스젠더 조직 또는 행사에서 자원 활동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 유인물은 FORGE가 2009-SZ-B9-K003에 따라 미국 법무부, 법무부 프로그램, 범죄 피해자 사무소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유인물에 표현된 의견, 조사결과, 결론 또는 권장 사항은 기고자의 것이며, 미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 또는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9) 원문에는 HIPPA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맥상 HPIAA의 오기로 추정된다. HIPAA는 미국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로, 개인의 의료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번역본에는 한국의 맥락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의역했다.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하기

출처 : PCAR, 『SERVING TRANSGENDE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2013.
저자 : Michael Munson(FORGE 사무총장)
번역 : 김재원(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성폭력의 만연과 그 빈도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20][21]는 높은 확률로 성폭력을 경험한다. 트랜스인들의 **50% 이상은** 살면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Kenegy, 2005; Kenagy & Bostwick, 2005). 아동 성폭력부터 청소년기 관계 폭력과 성인 대상 성폭력까지, 트랜스인들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고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는 높은 확률로 성폭력을 경험한다. 트랜스인들의 50% 이상은 살면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Kenegy, 2005; Kenagy & Bostwick, 2005). 아동 성폭력부터 청소년기 관계 폭력과 성인 대상 성폭력까지, 트랜스인들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고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1,000명 이상이 응답한 2011년 FORGE 설문 조사에서 자신이 성인 성폭력 생존자라고 밝힌 사람 중 72.2%는 아동 성폭력, 데이트 폭력, 파트너에 의한 폭력, 스토킹, 혐오 관련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FORGE, 2011).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최신 설문 조사(Grant 등, 2011)에서는 성폭력과 기타 폭력의 발생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폭력이 발생한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답변을 분류하였다.

---

20) (원주) 펜실베니아 강간대응연합(PCAR,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Rape)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인간 중심 언어(person-first language)를 사용한다. 이 긍정적인 접근법은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하며, 잠재적인 병리화와 낙인을 방지한다. 이와 동시에 일부 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종합적인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트랜스인들(trans people"), "트랜스 개인들(trans individuals)"을 비롯해 트랜스를 다른 요소보다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두는 표현들을 사용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트랜스 경험이 있는 사람(a person of trans experience)"과 같이 자신들의 트랜스젠더 이력이나 신체가 지니는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1) 젠더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성별이분법에 기반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나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 사람. 비관행적 젠더로도 번역된다.

- 트랜스젠더/젠더 비순응자 중 78%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2%는 성폭력이었다.
- 트랜스인 중 6%가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미등록이주민 근로자의 경우 이 수치는 19%로 증가했다.
- 스스로를 트랜스로 정의하는 사람 중 2%는 경찰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 수치는 거의 4배인 7%에 달했다. [비고: FORGE 설문들과 전미반폭력프로그램연대(NCACP, National Coalition of Anti-Violence Programs) 자료 등 다른 조사결과는 경찰의 위법행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감옥 내 성폭력을 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여성은 34%로, 이는 다른 인종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 트랜스인들 중 10%는 의료종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26%는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19%는 트랜스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처럼 높은 확률로 피해자가 되므로 폭력의 경험에 익숙해지거나 무뎌질 수 있다. 혹은 이전에 폭력을 당했을 때 문화적으로 섬세한 보살핌을 받은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폭력 피해 이후 의료적 도움을 요청하기 주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서비스의 부족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트랜스인들은 폭력을 당한 후 아래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 응급 의료조치 및 법의학적 검사
- 사법기관 보고
- 지원 활동가의 도움
- 보호명령 혹은 기타 법률적 조치
- 장기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많은 성폭력 사후 지원 서비스는 여성에게만 제공되며, 이마저도 흔히 비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만 제공된다. 이는 트랜스젠더 생존자들, 즉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젠더퀴어, 그리고 트랜스정체성이나 트랜스이력을 지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접근 장벽

트랜스인들은 성폭력 사후 지원 서비스가 여성 대상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접근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혹은 향후 지원 신청 시 우려되는 사

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서비스 제공자가 폭력, 적대감 표시, 거부, 조롱, 판단, 차별 행위를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 트랜스인으로 아우팅[22]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한 두려움
- 트랜스 친화성: 지원환경이나 실무자들의 태도가 트랜스 친화적이고 트랜스인을 존중하는가?
- 문화적 이해도: 지원단체가 트랜스인들은 존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 트랜스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정책, 문서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 인지도 및 활용도: 트랜스 생존자가 서비스의 존재 여부 혹은 이용 가능 여부를 알고 있는가? 트랜스인들은 범죄피해보상 등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거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핵심적인 정보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 평판: 트랜스 커뮤니티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서 한 명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이야기가 커뮤니티 내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러한 평판은 해당 단체에 도움을 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열쇠로 작용한다.
- 여성 중심성: 많은 서비스가 여성에게만 제공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단체의 이름이나 해당 서비스의 홍보방식에서 젠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인상을 준다.
- 수치심/부끄러움/낙인: 많은 생존자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수치심과 낙인에 더해, 트랜스인들은 진료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취약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지하경제에 종사한다는 점도 이러한 심리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 상황 악화: 많은 트랜스인들은 도움을 청하는 일이 과거의 기억을 자극하고 쓸데없는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경찰에 고소 혹은 법의학 검진 등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을 두려워한다.
- 제도적 문제: 현행 사법체계는 종종 생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며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야 하고, 경찰이나 기타 지원단체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비용: 많은 트랜스인들의 생활 수준은 빈곤 혹은 그 이하이며,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FORGE, 2011)

고용 차별과 여러 방면에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트랜스인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가 없거나 열악한 직업에 종사하며, 제한적인 소득으로 생활한다. 돈과 음식, 주거지, 기타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매매나 마약매매를 하며 길거리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트랜스인 성폭력 생존자들은 의지할 만한 거처와 음식, 기타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그들 중 일부에게는 당장의 끼니나 그날 밤 거처에 대한 걱정이

22) 타인이 성소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

법의학 진단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많은 트랜스인들은 제한적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나 정신건강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건강보험 등의 수단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까 두려워 각종 성폭력 사후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기 조심스러워 할 수 있다. 지원 활동가들은 내담자들에게 서비스가 무료임을 확인시켜주거나, 피해보상 혹은 기타 재정지원 신청을 도와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내담자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

지원 활동가들이 알아야 하는 것 /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많은 트랜스 생존자들은 2차 가해와 트랜스 및 성폭력 관련 낙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트랜스혐오와 문화적 둔감성 때문에 서비스에 접근하기 주저하며, 어떤 종류의 지원도 요청하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

생존자가 지원 기관을 방문하면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당신의 목적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트랜스 내담자들에게 많든 적든 그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로만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약속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생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트랜스 생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대화에 반영하여 되돌려주는 것이다. 내담자의 언어, 즉 그들의 이름을 비롯해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이나 신체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당신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내담자에게 이름과 지칭 대명사, 그리고 다른 단어 사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당신이 그러한 언어를 '맞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생존자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원 활동가로서 임무를 다한다면, 트랜스 생존자들은 당신을 교육하거나 당신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로지 내담자가 원하는 지원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질문, 서비스에 필수적인 질문만을 하라는 의미다.

대다수의 트랜스인들은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험과 잠재적인 폭력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로서 아우팅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랜스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체로 비 트랜스 내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다른 점은 과거의 폭력 경험, 트랜스혐오,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신원정보,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 경찰의 위법행위, 비 트랜스 생존자와 다른 신체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차이점들은 트랜스 생존자들을 보다 긴밀하게 지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섬세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확신을 심어 줄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먼손(Michael Munson)은 FORGE 사무총장이다. FORGE의 미션은 트랜스젠더 개인들

과 그 동반자, 친구, 가족, 지지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www.forge-gorwar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FORGE. (2011). Transgender individuals' knowledge of and willingness to use sexual assault programs. Manuscript and data submitted for publication.

Grant, J. M., Mottet, L.A., Tanis, J., Harrison, J., Herman, J.L. & Keisling, M. (2011). ***Injustice at every turn: A report of the National Transgender Discrimination Survey.*** Washington, DC :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and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Retrieved from http://www.thetaskforce.org/downloads/reports/reports/ntds_full.pdf

Kenagy G. (2005). The health and social service needs of transgender people in Philadelphia.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8(2/3), 49-56. Doi 10.1300/J485v08n02_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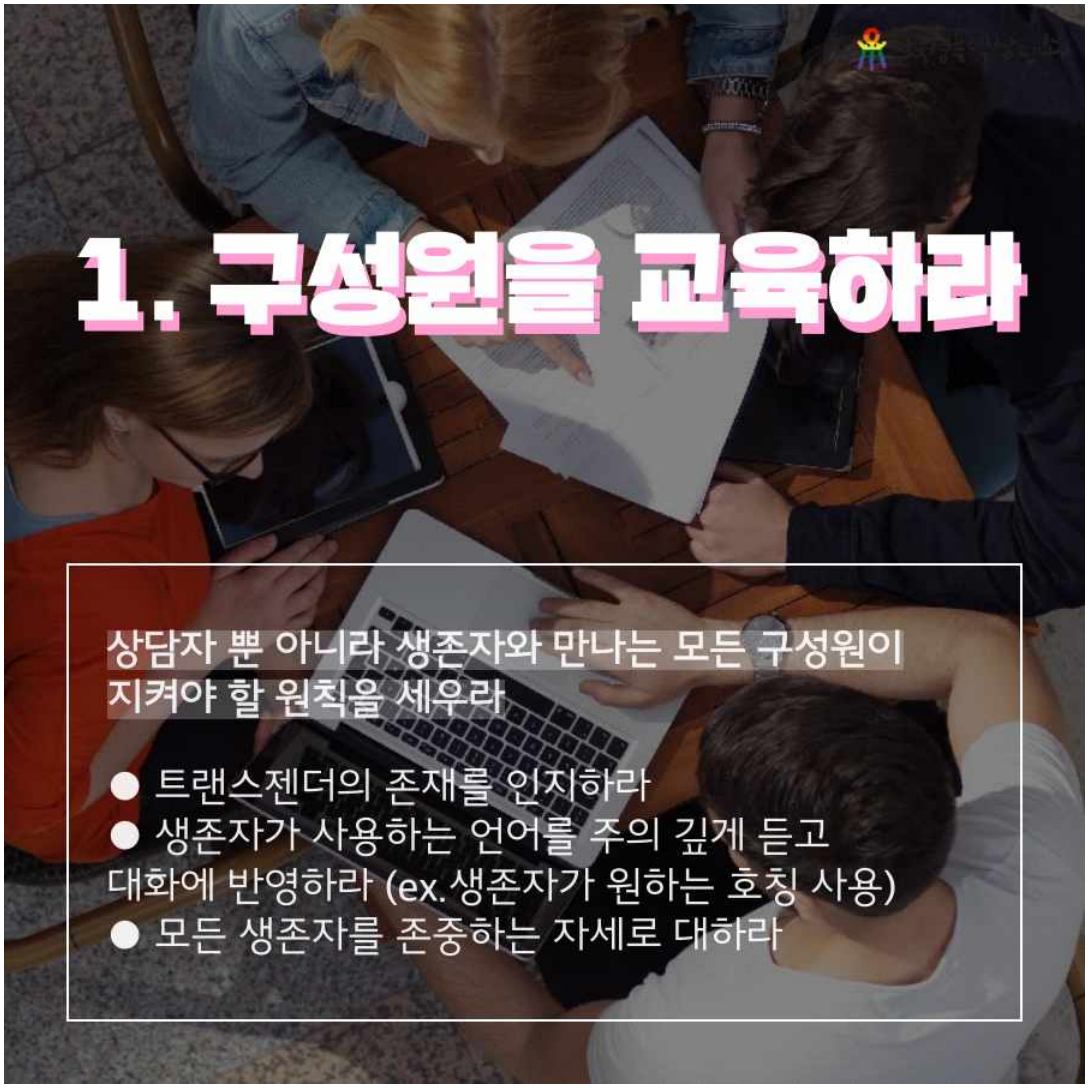
Kenagy G., Bostwick W. (2005). Health and social service needs of transgendered people in Chicago.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8(2/3), 57-66. Doi 10.1300/J485v08n02_06

역주 참고문헌

- 성소수자부모모임, 2018,『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별첨] 카드뉴스 :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10가지 팁
Michael Munson(FORGE, 2010)
한국성폭력상담소 재구성(2020)



1. 구성원을 교육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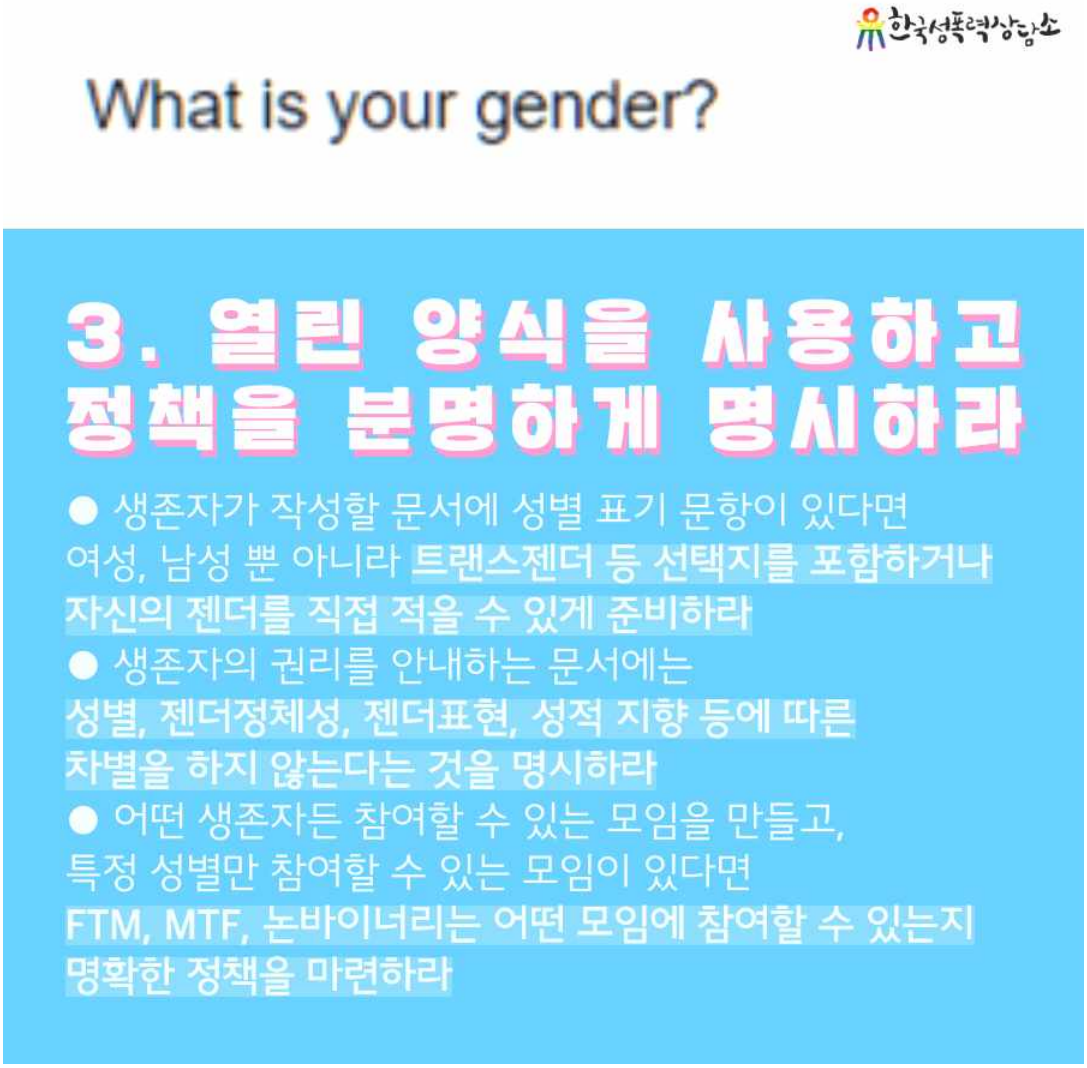
상담자 뿐 아니라 생존자와 만나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원칙을 세우라

-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인지하라
- 생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듣고 대화에 반영하라 (ex.생존자가 원하는 호칭 사용)
- 모든 생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라

2.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라

여성 피해자를 주로 상담·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는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할 때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관점,
권력을 지닌 성별에 대한 기존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스스로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 생존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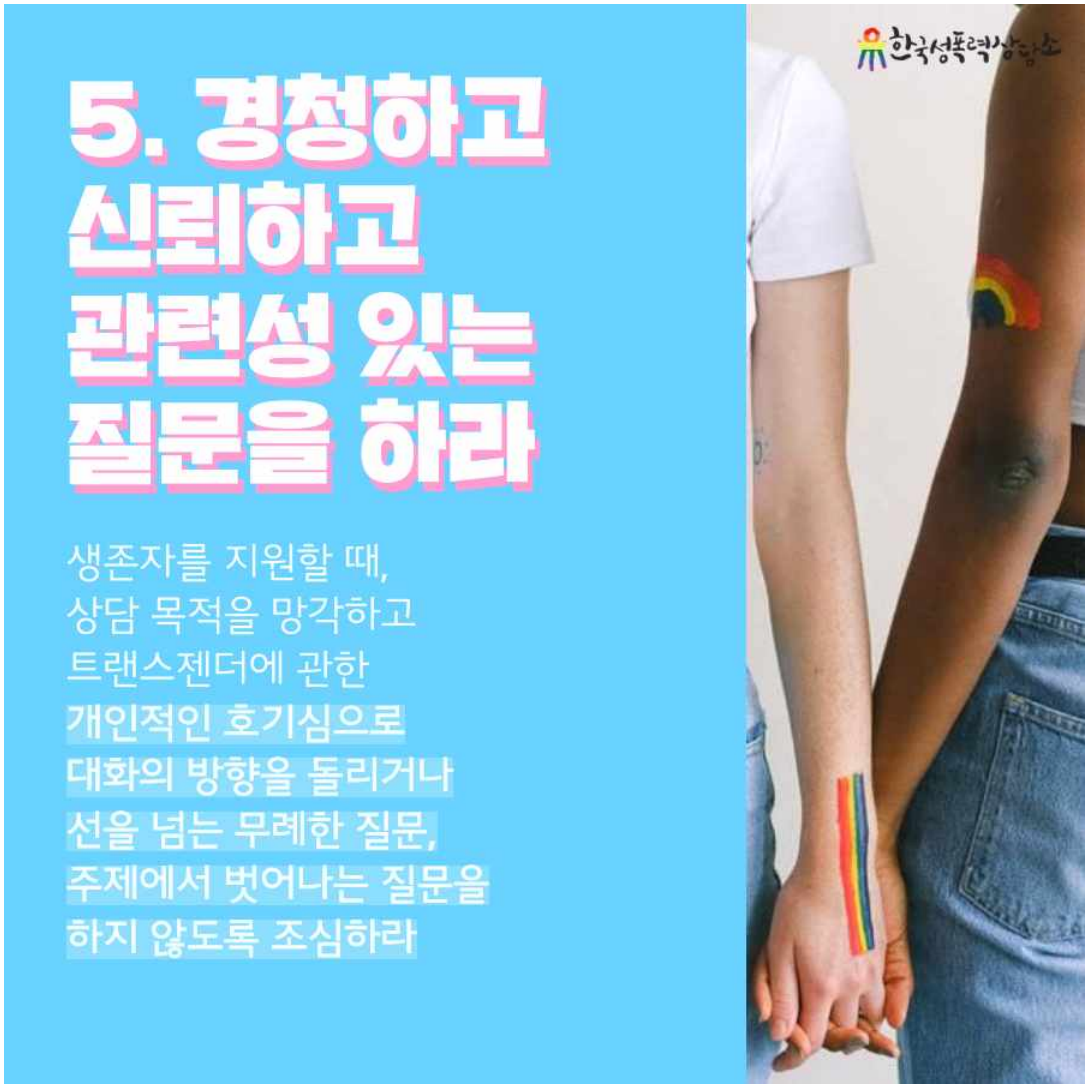


3. 열린 양식을 사용하고 정책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 생존자가 작성할 문서에 성별 표기 문항이 있다면 여성, 남성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등 선택지를 포함하거나 자신의 젠더를 직접 적을 수 있게 준비하라
● 생존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문서에는 성별, 젠더정체성, 젠더표현,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라
● 어떤 생존자든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특정 성별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FTM, MTF, 논바이너리는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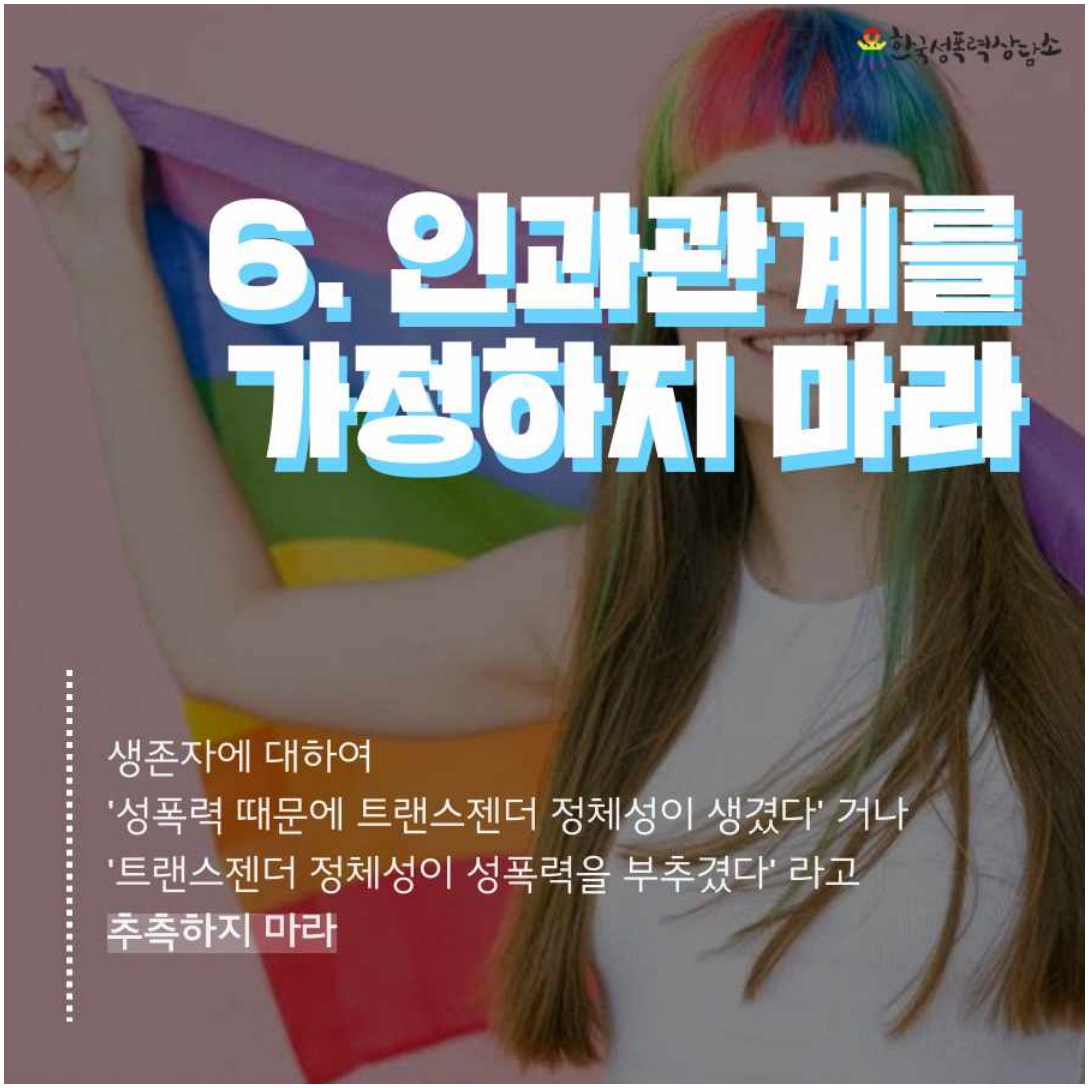
4. 당사자의 언어를 사용하라

생존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호칭이다
생존자가 선호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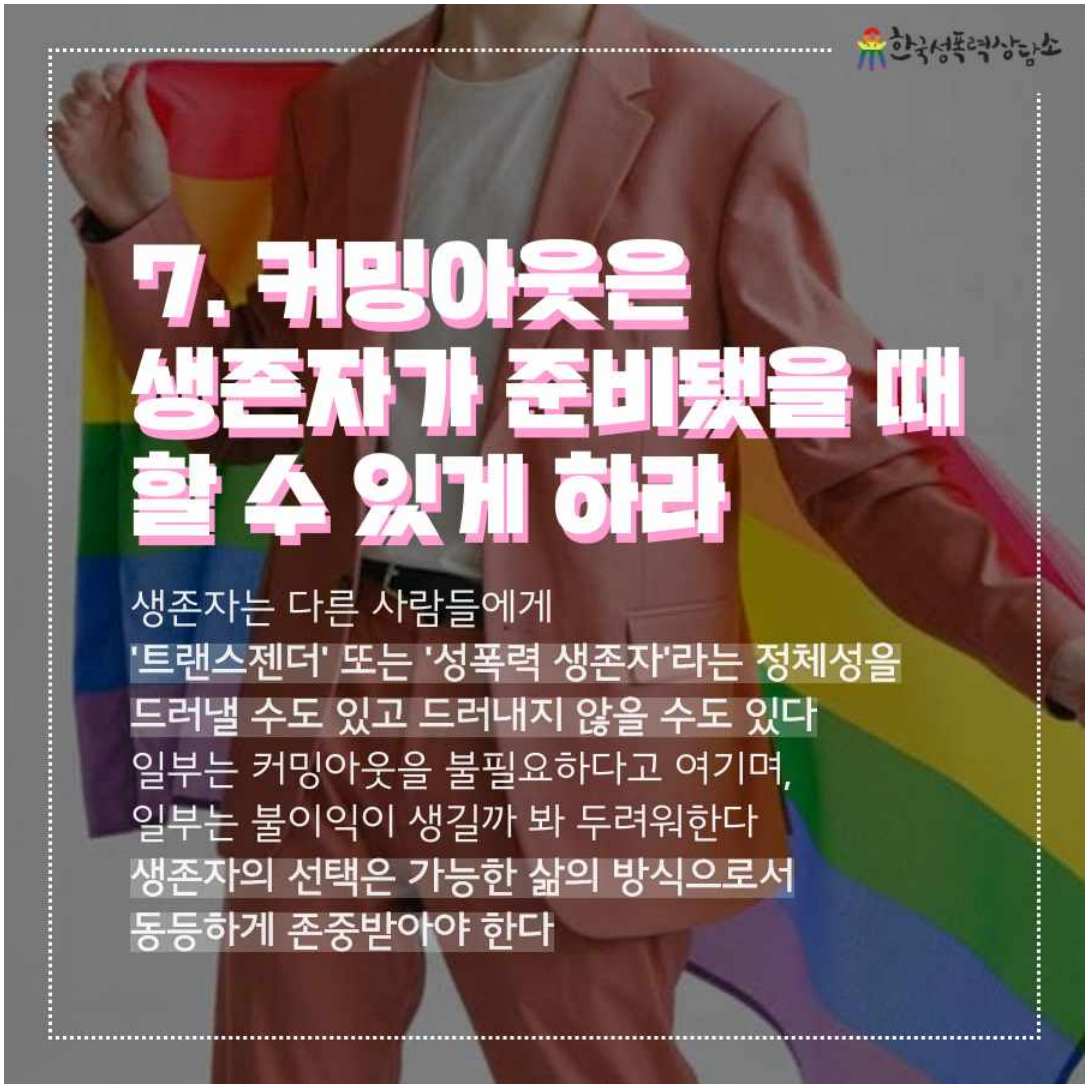
5. 경청하고 신뢰하고 관련성 있는 질문을 하라

생존자를 지원할 때, 상담 목적을 망각하고 트랜스젠더에 관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대화의 방향을 돌리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질문,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6.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마라

생존자에 대하여
'성폭력 때문에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생겼다' 거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성폭력을 부추겼다' 라고
추측하지 마라



7. 커밍아웃은 생존자가 준비됐을 때 할 수 있게 하라

생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 또는 '성폭력 생존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는 커밍아웃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며, 일부는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
생존자의 선택은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8. 디스포리아를 고려하라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 또는 젠더에 대하여
디스포리아*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생존자도 종종 신체에 대한 디스포리아를 느낀다
디스포리아는 안전하게 성적 합의를 하거나 피해 이후 도움을 청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신체, 젠더, 성 역할 등에 느끼는 위화감 또는 불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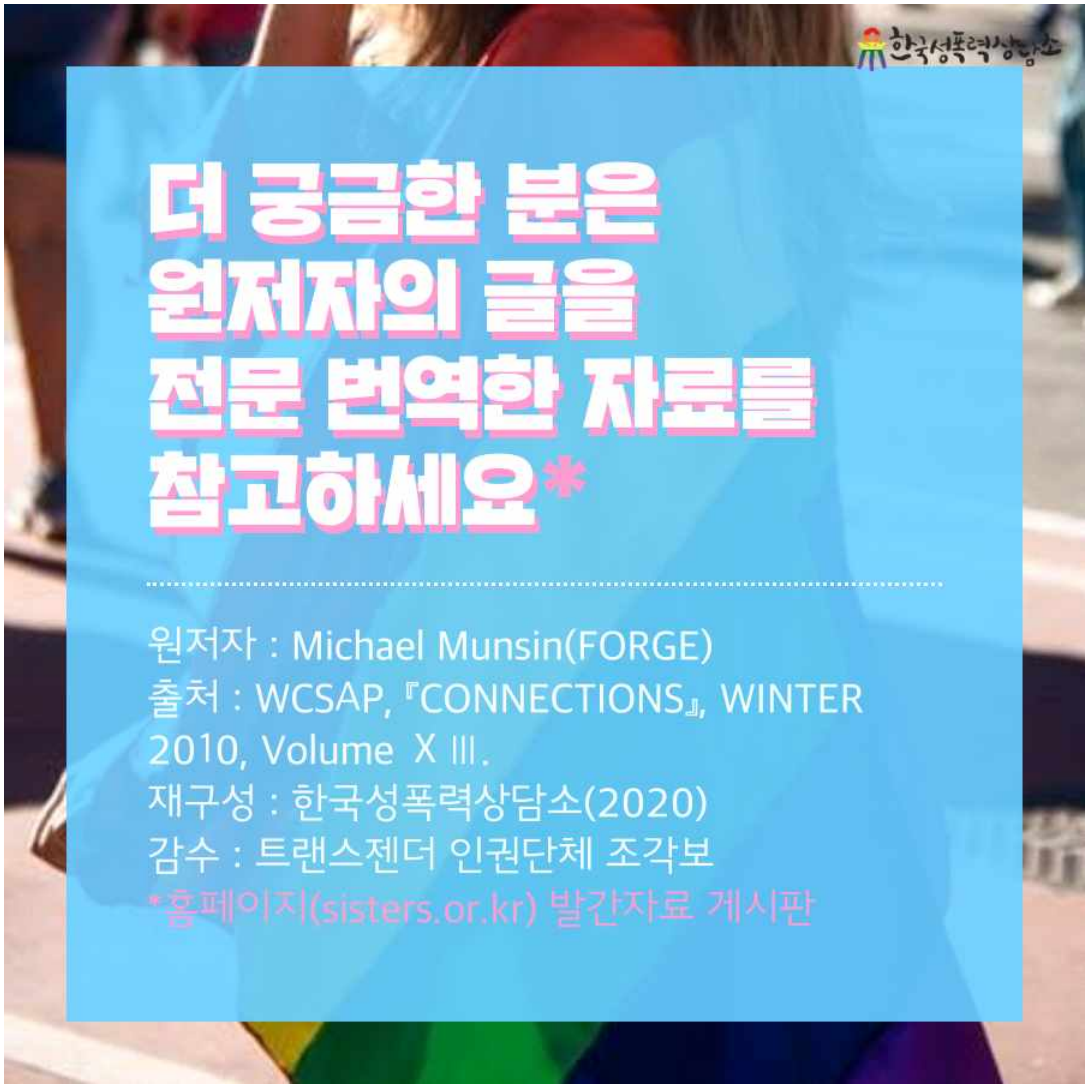
9. 다양성을 소통하라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라

● 열린 질문을 하고 성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 다양한 사람과 경험과 개념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대화에서 드러내라

10. 대담함과 창의성을 발휘하라

생존자를 존중하고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존자를 위해, 생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라



더 궁금한 분은 원저자의 글을 전문 번역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원저자 : Michael Munsin(FORGE)
출처 : WCSAP, 『CONNECTIONS』, WINTER 2010, Volume XⅢ.
재구성 : 한국성폭력상담소(2020)
감수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홈페이지(sisters.or.kr) 발간자료 게시판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Practical Tips for Working with Transgende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펴낸곳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 이미경
펴낸날 : 2020년 9월 18일
원저 : Michael Munson, FORGE
번역 : 김재원, 박아름
감수 : 박아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편집 : 박아름
폰트 : 나눔고딕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